2022년 5월 나성교회 구역모임 넷째 주

마태복음 18장1~6절

설교자 : 이해운 목사

날 짜 : 2022년 5월01일 말씀

핵심말씀.

- **오늘 본문 앞장 마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영광스런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을 직접본 제자들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갑자기 자신들의 영광을 생각하고 천국에서 누가 큰자인가를 논쟁하고 있었고, 이것을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자. 주님께서는 어린이를 가운데 세워 놓고 천국에서 큰 자는 반드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어린아이의 특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신자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어린아이의 첫째 특성은 = 절대적 의존성입니다.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전적으로 엄마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만 바라보는 신자임)**
  그래서 어린아이는 자신을 위해서 염려하지 아니하며 단순하게 엄마를 믿을 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겸손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최고의 겸손은 하나님께서 사람으로까지 낮아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겸손은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벗었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자의식이 없으며, 쉽게 친해지며, 남의 잘못을 금방 잊어버리며, 자신의 잘못도 금방 잊어버립니다

1. 우리 각자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어린이의 특성을 생각하면서 우리 각자 믿음으로 맡겨지고 또 맡겨지지 못하는 부분을 솔직히 나누어 봅시다.

2. 어린아이를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신 이 특성들이 나에게 나타나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나의 신앙생활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생각해 보며 나누어 보세요.

(* 위의 질문 이외에도 말씀을 들은 후에 은혜 받은 내용들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